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

□ 기대여명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보험회사와 정부는 은퇴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.

○ 미국은 부부 중 한쪽이 9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이 47%에 이르는 등 장수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, 금융자산과 주택자산 가치의 급락과 함께 보건의료비용의 빠른 상승으로 노후소득에 대한 근로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.

○ 이에 대해 미국 노동부는 401(K)*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촉진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.

* 401(K)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나 연금전환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음.

○ 지난 달 미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으로 단 6%의 가구만이 사적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, 이 중 순수한 연금소득을 제공하는 즉시연금(일시납 보험료 납입과 함께 연금 지급개시)의 비중은 3%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주로 일시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라고 밝힘.

□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연금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01(K)에 옵션을 부과하거나 즉시연금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.

○ Nationwide사는 연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401(K) 중 고용주 기여금에 대하여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지 않고 거치연금(fixed income-deferred annuity)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.

○ 미 교직원 연금공단(TIAA-CREF)은 대부분의 연금가입자가 자산축적 외에 어떻게 연금 소득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었다고 언급하면서, 최근의 설문에 의하면 퇴직 후 연금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.

○ New York 생명보험은 남성에 비해 기대여명이 높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즉시연금상품을 판매하였으며, 이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 전체 연금판매실적의 64%에 이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.

○ 연금상품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일정액의 연금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 무계획적 지출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고, 유산을 남길 수 없기 때문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상품들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.

(The Street, 5/14)